

공 사

철저한 안전관리로 쾌적한 안전도시 춘천 조성

코오롱글로벌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현장

강원도 춘천시에 최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오수관로를 신설하고 재정비함으로써 하수관거의 기능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는 공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춘천시는 방류수역 수질개선으로 악취가 저감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효율적인 하수관 유지보수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더욱 살기 좋은 춘천시의 등장이 임박한 것이다.

이런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코오롱글로벌'이다. '코오롱글로벌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현장'은 춘천시를 전국 제일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시공에 임하고 있다. 때문에 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춘천을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로 변화시키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봤다.

취재 연승기 기자 skyway@safety.or.kr

위험요소별 맞춤형 안전관리로 재해예방

이곳 현장의 주요 공정은 오수관로와 연결관 매설작업이다. 이 작업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소는 굴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붕괴사고다. 이에 이곳 현장은 작업 중 항상 경량 흙막이 시설을 사용하는 한편 사전에 단위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안전절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위험요소로는 '협착사고'를 들 수 있다. 협소한 공간에서 장비와 근로자가 한데 섞여 작업하다 보니 협착사고의 발생 위험이 매우 큰 것이다. 이를 감안해 이곳 현장은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안전모를 직원과 일반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했다. 특히 야간 작업 때는 반사조끼도 착용토록 해 사고의 가능성을 대폭 줄였다.

추락사고도 관로 매설작업에서 다발하는 재해 중 하나다. 이동 중 발을 헛디더 굴착한 땅이나 맨홀구간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곳은 이동과 설치가 편한 조립형 개구부 안전난간대를 별도로 제작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맨홀 설치작업 중 낙하 및 전도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 맨홀 인양용 고리(철물)를 자체 제작해 보급·사용함으로써 작업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세심한 근로자 관리로 유명

이곳 현장은 세심한 근로자 관리로도 유명하다. 매일 실시되는 안전조회 및 TBM 활동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중장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반영해 중장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장비의 경우 장비운행 허가증을 부착하도록 하는 가운데 운전자실명제까지 실시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해 놓았다.

이런 세심한 관리는 신호수 운영부분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곳 작업의 대부분은 도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안내신호수와 장비유도신호수를 별도로 배치해 근로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조치 역시 이곳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곳은 근로자들이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조치 미이행 스티커'를 부착한다. 그리고 시정이 된 다음에 작업을 다시 진행시킨다.

이 밖에도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안전관리에 접목시켰다. 이곳 관리



감독자들은 시정사항이나 위험요소 등 현장 상황을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이나 문자로 안전관리자에게 실시간 전송한다. 그리고 이를 받은 안전관리자는 즉각 대처방안을 관리감독자들에게 전한다. 이는 소수의 안전관리자가 시내 곳곳에 위치한 현장 전반을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한 조치다.



근로자를 위한 휴먼안전관리

이곳 현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따스한 배려로도 눈길을 끈다.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근로자들에게 목플라, 손난로, 패딩 조끼 등 방한용품을 대거 지급하고 있다. 또 근로자 휴게실을 항상 따뜻하게 관리해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고급 뷔페식당 식사권을 선물로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문화활동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이곳 현장의 목표는 준공일까지 '무재해' 현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 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면, 목표인 '무재해 준공'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

mini interview



안범기 소장

시설이 아닌 사람이 중심인 안전관리 추구

안전관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시설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안전시설이 아무리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도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사고는 결국 발생합니다. 즉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리 위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현장 경험이 풍부해 사고의 위험과 대처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지 않을 뿐입니다. 때문에 근로자들이 마음을 열고 안전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 직원들이 근로자들을 가족 같이 대하고 사랑을 전하면 근로자들은 스스로 안전을 실천합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김중희 안전과장

안전관리자의 필수 덕목은 '열정'

현재까지 저는 여러 현장에서 무재해 준공을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안전관리의 방법에 대해 묻곤 합니다. 그럴 때 마다 저는 열정을

지닌 안전관리자가 될 것을 당부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단순히 목욕을 하다가 발견했을까요. 또 뉴턴이 가만히 사과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끝없이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던 중 하나의 계기를 통해 업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즉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연구가 완성될 수 있는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자가 평소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면 무재해라는 결과물은 단계에 따라 결국 쟁취하게 되어 있습니다.